

철학사상연구소 콜로키움 요지

제 43 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동서 비교철학 연구—로티와 장자
 이광세 (미국 켄트주립대 교수)

이광세 교수는 동서철학을 비교 연구하며, 서기 4세기 전 중국의 장자와 20세기 미국의 로티를 비교한다. 그는 시간과 문화적인 경계선을 넘어 세가지 기준을 통해 兩者를 비교하고자 하는데, 그 세가지 기준이란 다름아닌 ‘반표상주의’(anti-representationalism), ‘다원주의’(pluralism), 그리고 ‘대화’의 개념이다. 이교수에 의하면 첫째, 반표상주의는 모두 양자의 다원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둘째, 다원주의는 모두 근대적 민주주의의 사회정치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는 곧 어떤 고정된 입장의 절대화에서 야기되는 독단성과 독선주의를 반대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셋째, 아귀다툼인 논변적 싸움보다는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다른 입장들을 상호이해하고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의 필요를

양자의 철학은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처드 로티는 미국의 반기초주의자(anti-foundationalist)이다. 로티의 반기초주의는 그의 다원주의와 실용주의와 융합된다. 그는 형이상학적 실재론을 거부하며 그의 반기초주의는 반표상주의와 연결된다. 로티에 의하면, 반표상주의는 표상(representation)이나 사물(fact of the matter)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해 보아 유용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이며 물자체(Ding an sich)를 우리의 언어와 비교하려는 것은 헛수고이며 우리 언어와 다른 언어간에 상응(correspondence)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로티에 의하면 실재론은 지식의 목

표가 이미 일정하게 절대적으로 주어졌던 현실을 정확하고 특권있게 표상(privileged representation)하는 것이라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티에게는 어떤 언어체계로부터도 독립되어 있고 어떤 언어로도 표현될 수 없는 현실의 개념이란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로티의 같은 표준에 의한 ‘비교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의 개념은, 그의 특권있는 표상이라는 개념을 배척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다원주의로 이어진다. 그는 이 비교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서로 다른 개념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끌고 가며, 이 점에서 이교수는 로티의 다원주의를 ‘평화적 다원주의’(irenic pluralism)라고 부른다.

반표상주의의 요점은, 어떤 입장 또는 개념체계와도 독립해서 선재적(先在的)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현실개념의 부정, 즉 물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교수는 물자체를 부인하는 배후에, (로티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그리고 장자에 있어서는 암시적으로) 진리의 일원화를 기하는 절대주의를 반대하는

정치적 주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서양철학자들처럼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지는 못하지만 장자의 경우에도 반표상주의와 다원주의적 사고가 경구적, 암시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예컨대 제물론(齊物論)의 “天地一指也 萬物一馬也: (道樞의 입장에서 보면) 천지도 하나의 손가락이고 만물도 하나의 말이다”, “可乎可 不可乎不可: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좋은 것은 좋다 하고 자기가 싫은 것은 좋지 않다고 하게 된다” 등을 들 수 있다. 장자와 로티와 같은 반표상주의자들이 볼 때, 어떤 국한된 입장에서 표현되는 의견을 절대적으로 주어졌다고 여기는 물자체의 본질적인 속성과 동일화할 때 독단적인 절대주의가 산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장자는 어떠한 일정한 전망이나 입장과 동떨어져 절대적으로 주어진 한정된 속성, 물자체 혹은 미자체(味自體), 미자체(美自體) 등을 부정한다. 사람은 고기맛을 좋아하지만 순록은 풀을 먹기를 좋아하고, 미인은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답지만 물고기는 그를 보면 놀라 달아나게 되는 것이다. 즉

다른 맛들과 아름다움들은 제각기 어떤 특수한 전망이나 견지에 상대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다른 맛들과 아름다움들은 평화적 공존(irenic co-existence)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장자의 다원주의는 로티의 그것보다 광범위하다. 이교수에 따르면 로티가 다른 개념체계들 간에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음을 지적함에 그쳤다면, 장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는 것이다. 각자의 견지에서는 상대되는 유한성에 국한되어 있으나 참된 도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구별이 사라져 다같이 하나가 되며, 이렇게 어떠한 체계의 국한성을 벗어나 독선을 피하는 길이 소요유(逍遙遊)요, 개념적 분화를 떠나는 상태가 무(無)이다.

이광세 교수는 또한 로티와 장자의 철학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중요성에 관한 시사를 주목한다. 물론 이 점은 그들의 다원주의로부터 연결

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교수는 로티의 “ethnocentrism” 개념은 각자 자기가 속하는 문화적 전통이 절대적인 기초는 아니지만 어떠한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자는 것이며, 장자의 “양행(兩行)” 개념은 대립된 입장들을 함께 같이 밀고 나가며 서로 다른 입장과 태두리들을 다같이 순조롭게 뺏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교수는 로티에 있어서 대화는 자기창조의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면 장자에 있어서는 만물의 통소리에 귀를 기울임이 자아의 화(化)의 과정에 불가결한 것임을 밝히며, 장자에 있어서는 로티보다 범우주적인 조화의 면이 돋보인다고 말한다. 즉, “각기 스스로가 소리를” 내면서, 말하자면 개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적이고 범우주적인 현묘한 조화 속에서 소요유하고 자기 창조를 꿈꾸며 설계하는 것이 장자의 평화적 다원주의이며 낙관론이라는 것이다.

제 44 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당대 中國 대학에서의 사상교육의 변화

李正奎 (중국 연변대 교수)

문명사회에서 교육이 인재 배양의 기본적 수단과 과정으로 된다는 사실은 의심할 바 없겠지만 한 나라의 교육이 결국 어떤 인재를 육성해 내느냐는 흔히 사회제도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하겠다. 가령 교육을 통해 육성되는 인재를 “智, 德, 體”가 겸비된 자로 규정한다고 하면 그 성격적 차이는 智와 體에 대한 교육에서가 아니라 德에 대한 교육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1949년 신중국이 창건된 이래 전국적으로 소학교육으로부터 초등, 중등교육 및 고등(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화한 새로운 사상정치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점차 비교적 완전한 체제를 이루었다. 民國시기(국민당 통치시기)의 봉건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사상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러한 德育 교육의 목표는 당

연히 사회주의에 유용한 인재를 배양하는데 있었다. 물론 중국에서 근 반세기에 걸쳐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사상정치교육이 고정 불변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며 사회의 변화발전과 더불어 그 상황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에서의 사회주의체제 건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상교육실태에 관해 대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사상정치교육의 목적과 의의

중국에서는 “청년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마르크스주의 기본이론 교육과 사상품덕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사회주의 대학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현대 중국사회가 半식민지, 半봉건적 사회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했던만큼, 신생한 사회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사상적으로 기존의 체제에 적응될 수 있는 인재배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마르크스주의 사상교육을 모든 대학에서의 필수과목으로 규정하였다.

대학에서의 사상정치교육은 그 목적과 의의에 있어서 70년대 말 “개혁개방”을 계기로 前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일관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상정치교육의 근본 목적은 학생들을 인도하여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수립하게 하고 사회주의 사업을 위해 분투하는 정치적 지향을 확립하게 하며 그릇된 사조와 금전숭배주의, 향락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같은 부패한 사상의 침습에 방어하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사업의 계승자로 육성하는 것이다.”

2. 사상정치교육의 중요한 내용

“개혁개방” 이전, 사상정치교육은 마르크스주의 계급투쟁학설을 주요내용으로 하였고 현실문제보다는 주로 추상적이고 기계적인 이론 교육에 착안점을 두었다.

이것은 당시 중공이 마르크스주의를 교조화하면서 “계급투쟁을 기본 고리로 해야 한다”는 기본노선을 실시한 것과 직접 관계된다.

70년대 말, 중공이 사업중심을 계급투쟁으로부터 경제건설에 옮기고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부터 기존의 사상정치교육이 그 내용이나 형식에서 모두 변화되고 있는 국내외 형세에 적응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85년, 중공은 당중앙 18호 문건(『학교덕육사업을 개진하는 데 관한 중공중앙의 약간한 의견』)을 반포하여 사상정치교육의 개혁을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상응한 개혁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진행되는 사상정치교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학생들에게 마·레주의, 모택동 사상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 이론교육을 진행하며 더욱이 그들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건설 이론의 기본관점과 이론체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을 도와줌으로써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방법으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 ② 중국 혁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근현대사 교육, 혁명전통교육과 국정(國情)교육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민족자존(自尊), 자신(自信), 자강(自強)의 애국주의 정신과 간고분투의 정신을 키워주는 것이다.
- ③ 중국민족의 우수한 도덕적 전통교육과 직업도덕교육을 포함하여 인생관, 가치관, 도덕관을 핵심으로 하는 사상 품덕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숭고한 이상을 수립하고 양호한 사상품덕을 키우며 민족특색과 시대적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치기준과 도덕규범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다.
- ④ 법제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법제 관념과 법 의식을 증강하는 것이다.
- ⑤ 적시적으로 정상적으로 형세교육과 정책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 ⑥ 세계 정치경제와 국제관계에 관한 기본지식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며 대외개방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입장과 강한 적응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3. 관련 학과목 설치 및 학점

사상정치교육개혁 이전, 관련 학과목은 이과계(理科系) 학과에서는 <중공당사>, <정치경제학>, <마르크스주의 철학> 등 3개 과목이 개설되었었고 문과계(文科系) 학과에서는 3개 과목 외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사> 과목이 더 개설되었었다. 이 4개 과목에 의한 사상정치교육을 이론교육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학개혁 이후 이론교육의 내용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과목명칭도 모두 바뀌었다. 그리고 이론교육 외에 사상품덕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양과목과 일부 선택 수업과목(選修課目)들이 증설되었다.

1) 이론교육 과목 설치 및 학점

① 과목개설

4년제 대학과정의 이론교육 과목은 이과계 학과에서는 <중국혁명사>, <사회주의 건설이론>, <마르크스주의 기본원리> 등 3

개 과목이 개설되고 문과계 학과에서는 이외에 <세계정치경제와 국제관계> 1과목이 더 개설되고 있다. 2년제와 3년제 단과대학일 경우, 위의 4개 과목 중 2-3개 과목만 개설되고 있다.

② 교학 시간수(時間數)

이론교육의 교학 시간수는 각 과목을 합쳐 4년제 대학과정은 문과계에서 250시간 이상, 이과계에서는 200시간 이상으로 배당되며, 단과대학에서는 문·이과에서 모두 3년제는 150시간 이상, 2년제는 100시간 이상으로 배당되고 있다.

③ 학점

이론교육 과목의 학점은 과목당 대학과정에서는 4학점, 단과대학에서는 2-3학점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밖에 대학졸업자가 연구생(대학원)에 입학하려면 전공학과 시험 외에 반드시 국가에서 관리하는 두 가지 <석사학위 연구생 입학통일 시험> 중의 하나인 <정치이론 시험>(다른 하나는 <외국어 시험>임)에 합격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원 입학 후에도 여전히 마르크스주의 이론교육을 학습

해야 하는데, 관련과목은 대학원 학과 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2) 사상품덕 교육의 과목 개설 및 학점

사상품덕교육은 일반적으로 <사상도덕수양>, <법률 기초지식>, <형세와 정책교육> 등 3개 과목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교학 시간수는 대학과정에서 85시간, 단과대학에서 68시간 정도로 배당되며 학점은 과목당 2학점이다.

3) 선택과목 개설 및 학점

교학개혁 후, 국가에서는 새로운 시기의 합격된 인재배양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론교학, 사상품덕 교학과 서로 배합되는 선택과목 개설을 적극적으로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선택과목 개설에 관한 국가의 통일적인 규정이 따로 없다. 그러므로 각 고등학교에서는 자체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선택과목을 나름대로 개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정치, 경제, 법률, 철학, 사회윤리, 종교 등 인문사회과학 영역에 연관된 것들이다.

선택과목의 교학 시간수는 일반적으로 과목당 40시간 정도이며 학점은 과목당 1-2학점으로 되고 있다.

4. 사상정치교육 부서 설치, 교원 및 과학연구

1) 부서설치

중국의 각 고등학교에서는 모두 학부(系)급에 해당되는 사상정치교육 전문부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명칭은 ‘마·레주의 교연부’(혹은 ‘마·레주의 학원’), ‘사회과학 기초부’ 등으로 학교마다 다르다. 部의 업무지도는 주임(학부장), 부주임(부학부장) 등이 책임지며, 일상 행정사무는 판공실 주임, 행정비서, 자료원 등 전임직 행정인원들이 맡아 처리한다. 部 산하에는 과목별로 6-7개 교연실이 설치되어 있고 과학연구 방향에 따른 관련 연구소(또는 연구실)가 설치되어 있다. 교내외 관련학과 교학과 과학연구 임무는 모두 교연실과 연구소의 전임직 강사와 교수들이 책임지고 완수한다.

2) 교원

사상정치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은 반드시 해당전공학과 졸업자여야 하며 학력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대학원 졸업자가 본 업무의 전임직 조교로 되려면 우선 部에서 조직한 2-3차의 시험 강의에서 관련학과 교수들의 심의에 통과되어야 하며, 이 기초 위에서 1년 간의 시험고찰에 합격해야 한다. 사상정치교육 전임직 교원에 취직한 후의 노임, 직함 등 모든 대우는 기타 학과 교원들과 동등하다.

3) 과학연구

본업 전임직 교원들의 연구작업은 본 학과 건설과 교학 가운데서 부딪힌 이론문제나 실전문제를 연구과제로 하여 진행되는데, 그 중 가치가 비교적 큰 과제들은 국가교육 과학 연구규획이거나 고등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규획에 들어가며 연구경비도 국가예산이나 학교예산에 들어간다.

이상이 현재 중국대학에서의 사상정치교육 기본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제 45 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오늘날 미국에서의 실용주의
 Peter Hare(미국 뉴욕주립대 교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초기 실용주의자 철학자로서는 찰스 퍼어스와 윌리엄 제임스 그리고 존 듀이를 꼽을 수 있겠는데 퍼어스와 제임스의 경우 의미론과 진리론에 있어서 실용적인 (pragmatic) 관점을 취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참인 믿음이라는 것이라든지 지식은 지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획득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듀이는 전통의 형이상학대신 경험의 발생적 자취에 대한 분석으로서의 형이상학을 옹호했다. 이 밖에 자아, 행동, 언어에 관한 미드의 생물학적 사회학, C. I. 루이스의 선형적 화용론등이 있는데 이들 이론은 영국 분석철학과 비인학과의 논리 실증주의가 1930년에서 40년대에 크게 위세를 떨치면서 자신의 주도권을 내주지만 능력있는 일군의 소수 철학자들(듀이를 가르쳤던 콜롬비아대학의

헤어 스승을 포함해서)을 통해 이런 실용주의 이론의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리처드 로티는 *Philosophy and the Mirror of Nature*(1979)에서 고전 실용주의가 비판했던 독단적인 이론들을 다시 비판한다. 독단적인 이론이란 토대주의와 진리모사론이다. 분석철학과 서구인식론의 전통은 잘못된 실패라고 하는 가운데 실용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로티의 결론은 물론 고전 실용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은 반대에 직면해서 옹호될 때 정당화되는 것이며 따라서 정당화는 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것이다. 서구 인식론 전통에 있어서 mirroring이 아니라 conversation을 로티는 주장하며 프랑스 해체론 철학자 데리다와 유사하게 지식과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가치 역시 단지 사회적 관습이라고 본다. 토대주의

에 대해서 고전적 실용주의자와 로티는 똑같이 반대하지만 로티와 달리 고전적 실용주의 전통의 작업에서는 (예를 들면 헤어) 실용주의의 핵심은 서구 철학에 있어서 많은 전통적인 이분법적 관점을 제거해줄 수 있게끔 하는 전망인 것이다. 예를 들어 지식을 확실성 아니면 회의주의에서 바라본다든지 가치를 인간생활과 무관하게 발견되거나 아니면 개별인간이나 집단의 산물로 바라보는 것이 이런 이분법인데 이에 반해 고전적 실용주의는 핵심 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이분법에 대한 제거를 수행하고자 한다. 세계는 역동적인 일련의 상호작용, 교차, 중첩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 정신이라는 것도 개체나 불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과정의 묶음인 것이다. 인간의 행위는 언어가 그러하듯이 생물-사회학적 과정이다. 진리와 지식은 관습속으로 이르는 하지만 관습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리는 정신과 무관한 실재에 순수한 관계를 포함하지만 그 관계라는 것이 대응적인 관계는 아니다. 가치라는 것 역시 객관적인 실재이지만 그것은

생물적 본성을 지닌 인간과 환경 사이의 역사적인 교섭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우리는 로티와 그의 추종자들이 그러듯이 욕조의 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려서는 안된다. 토대주의라는 욕조의 물은 버릴지언정 진리, 지식, 객관적 가치 등을 버려서는 안된다. 로티를 놓고 ‘신실용주의’라고 하지만 수잔 하크와 나는 오히려 ‘통속(vulgar) 실용주의’라고 부르고 싶다. 이런 실용주의는 오히려 실용주의 전통자체의 타락인 것이다.

내가 반대하고자 하는 또 다른 실용주의는 소위 ‘케케묵은 것을 들추어내는 실용주의’ 내지 ‘보수적 실용주의’이다. 이런 관점은 퍼어스, 제임스 등의 고전적 실용주의가 의미있게 개선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들의 작품을 온전히 해석하고 많은 비판으로부터 옹호해내는 것 뿐이 된다. 이에 반해 나는 ‘진보적 실용주의’를 주창하고자 한다. ‘진보적 실용주의’란 다른 철학적 전통(미국이나 해외의)으로부터 배우는 가운데 자기자신을 부단히 개선시키고자 하

는 실용주의를 말한다. 우리는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분석 철학의 전통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데 보수적 실용주의자들도 인정하듯이 그런 전통은 오늘날 살아있는 저명한 분석적 실용주의자, 와인, 데이빗슨, 굿맨, 퍼트남 등이다. 아쉽게도 이들은 거의 고전적 실용주의의 풍부한 유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과정으로서의 형이상학이 고전적 실용주의의 기초이자 핵심이라는 것과 이러한 과정 형이상학이 없으면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제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보수적 실용주의자 역시 대륙 철학이나 동양철학으로부터 거의 배우질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진보적 실용주의는 유럽 현상학과 하버마스의 사회, 정치이론으로부터 배우고 있으며 드물기는 하지만 불교의 유산으로부터도 그러하다.

몇몇 중요한 현재의 미국 실용주의자와 실용주의에 있어서 그들의 위치는 그렇게 진보적이지도 그리고 포괄적이지도 못하다.

샌드라 로젠탈의 경우 과정 형이상학과 고전적 실용주의 유럽적 자원에 대해서는 강한 반면에 분석철학이나 동양 철학,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 머레이 머피는 분석철학과 고전 실용주의의 유산에 강하지만 유럽 쪽의 자원과 과정 형이상학, 동양적 사고, 페미니즘 쪽은 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지그프리트의 경우 그는 과정 형이상학, 페미니즘, 유럽철학에는 강하지만 분석철학과 동양철학 쪽은 약하다. 이나다(Inada)의 경우 동양철학, 과정 형이상학, 고전 실용주의의 유산에는 강하지만 분석철학과 페미니즘, 유럽철학에 약하다. 수잔 하크의 경우 분석철학, 고전 실용주의에는 강하지만 과정 형이상학, 유럽 철학, 페미니즘, 동양적 사고에는 약하다.

결론적으로 통속 실용주의, 보수적 실용주의, 진보적 실용주의를 대비하면서 오늘날 미국 실용주의에 있어서 몹시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 전망있는 생각들을 전달했기를 바란다.

제 46 차 콜로키움 발표문 요약

도가사상의 현대적 가치

葛榮晉 (중국인민대 철학과 교수)

2천여년 전에 생겨난 중국의 도가사상은 현대 공업 문명의 위기가 노출되고 사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대 희랍의 원자론과 근대 데카르트·뉴우튼 역학의 사유방식의 토대 위에 세워진 서양의 근대 물리학은 비록 불멸의 공헌을 이룩하였지만 이제 커다란 곤경과 도전을 맞게 되었다. 이미 하이젠베르크나 카프라 등과 같은 많은 물리학자들이 서양의 원자 구성론을 회의하기 시작하여 중국 고대의 도가적 사유 양식으로 전향하였고 또한 이를 통하여 현대 물리학 연구의 곤경에서 벗어나 현대 물리학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고 있다. 도가에서 말하는 “道”는 “有”(즉 일종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것)과 “無”(道の 질박성·초월성)의 통일이며, “道”가 우주만물을 생산해내는 것은 실제로 하나의 “無”에서 “有”로의 과정이고 하나

의 존재 형식에서 다른 하나의 존재 형식으로의 轉化인 것이다. “道”의 생성론적 사유 양식은 서양전통의 원자 구성론에 비해 현대 물리학의 발전 추세와도 걸맞는 우주론적 사유형식이라 말할 수 있다. 미국의 과학자인 헬리와 영국의 과학자 호킹, 천체물리학자 가모프 등이 도가사상의 道 개념의 가설과 사유 방식에 유사한 모델들을 제시한 바 있다.

“道法自然”(『老子』, 제25장)은 도가의 기본적인 철학 명제이다. 이 명제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의 함의를 갖는다. 첫째는 인류의 이익을 중시하여 자연의 생태환경을 제마음대로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둘째는 인류의 모든 행위는 만물의 본성의 운행에 따라야 하며, 셋째는 인류의 자유자재한 정신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道法自然” 사상에 입각하여 일본의 농학자 후쿠오카 마사노부(福岡正信)는 ‘자연농법’을 구

상하였고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는 과학적 건축의 폐단을 지적하며 ‘유기건축’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도가사상의 응용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자연 생태의 파괴와 공업문명 사회의 폐단이 드러남에 따라 “道法自然”이 앞으로 현대 의식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속한 경제 발전은 단순히 서양의 “경성관리(硬性管理)” 방식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아주 부족하다는 점과 아울러 반드시 동양의 전통문화(도가사상을 포함) 안에서 지혜와 역량을 흡수하여 일종의 “연성관리(軟性管理)”와 “경성관리”를 결합시킨 동양의 관리 방식을 취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격렬한 경쟁과 급변하는 사회의 도전에 비로소 대응할 수 있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케 하였다. 그러므로 “無爲而治”, “柔弱勝剛”, “有無相生”, “虛實相資”, “以奇用兵”, “反者道之動” 등 중국 도가 철학의 기본 관념은 마침내 세계 각국의 기업가와 관리학자에 의해 정치관리 및 기업관리에 응용되게 되었다. 도가의 연성관리 사

상은 현대의 과학적 관리 사상체계의 유기적 조직 요소로 바뀌게 된다.

의학적 측면에 있어서도 도가 사상은 단순한 서구식 생물학적 의학으로부터 “생물—심리—사회”라는 종합적 의학 형태로의 전향하게끔 하는 사유양식을 보여 준다. 현대 의학 양식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도가의 “形神合一”의 심리치료, “道法自然”의 자연치유, “有物混成”의 정체관념(整體觀念), “反者道之動”의 변증적 사유 등은 서양의 생물학적 의학의 결점과 약점을 제대로 보완해 주었다. 또한 현대 인류의 가치사상 체계의 와해·인간관계의 삭막함과 소원함·도덕의 퇴조와 심리적 불균형·물욕에 소외된 인격 전도의 상황에 직면하여 도가가 제기한 “身重於物”, “少私寡欲”이란 삶의 가치방향은 현대인에게 “명예·돈 등은 외재적인 것”(身外之物)이란 관념을 심어주고 출세 심리를 희석시키며 이익 충돌과 권력 싸움으로 격화된 인간 관계를 완화시키고 개개인의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는데 일종의 청량제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

이다.

도가에서 추구하는 삶의 이상적 경지론은 비록 약간의 소극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창조하고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며 또한 고귀한 인격 형성의 측면에 있어서 사회의 각종 폐단과 사람의 심리적

장애를 시정하는 良藥으로 여전히 인생의 지혜의 빛을 발하고 있다. 도가 문화는 비록 진부한 것이지만 만약 우리가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잘 전화시켜 시대에 걸맞는 생명력을 부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또한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한 그루의 상록수인 것이다.